

“노을대교 추진 등 향후 10년 고창 미래비전 제시”

고창군,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 군민토론회 다양한 정책 쏟아져
서해안철도, 무장~상하 지방도 733호선 개설 등 SOC 중점 건의

“노을대교 등 산업 기반시설에 좀 더 집중하고 또 세계문화유산도시의 가치를 공유할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 23일 오후 고창군청 5층 상황실에서는 향후 10년 고창군의 미래비전을 그리는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군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고창의 다양한 군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장점과 단점, 앞으로 바다는 정책 방향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SOC기반 구축 등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현재 고창군은 ‘노을대교(고창~부안)’와 ‘서해안철도(군산~목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민들은 끊어진 무장~상하 지방도 733호선 개설 등을 중점 건의했다. 또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세계문화유산 도시의 가치를 지역주민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컸다.

여기에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공동체 환경(외국인노동자, 다문화이주여성, 어르신, 귀농귀촌인)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센터 구축 등의 정부 공모사업 대응도 건의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계획의 충분한 검토와 관련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충분히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군민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은 국토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에 담길 예정이다.

용역은 앞으로도 군민토론회와 중간·최종보고회를 추가로 열고, 내년 초 마무리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의 현황과 미래 나아가 갈 바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개진해준 고견을 바탕으로 소통과 역량이 바탕이 된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군민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창군 제공)



“탁 트인 내장호”

정읍시, 전신주·전선 정리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초입 내장호(사진)의 주위 경관을 해치던 전신주와 전선들이 말끔히 정리됐다. 정읍시는 총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 내장호와 조각공원 사이 250m 구간의 전신주와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내장호는 내장산관광특구의 중앙에 위치한 호수로 생태공원과 어우러지며 자연적 아름다움과 인공적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뤄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하지만 곳곳의 전신주와 지렁이처럼 전선들 때문에 내장호 주변의 수려한 경관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져 왔다.

정읍시는 내장산 관광의 육에 티인 전신주를 없애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이날 공사를 마무리지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농민수당 양봉·어가도 지원

전북도, 개정조례 의회 통과

전국 최초로 연간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전북도가 내년부터 ‘양봉 및 어가’에도 수당을 지원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에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하는 ‘전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최근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에는 양봉업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양봉농가·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조사를 통해 파악한 양봉농가 500호와 어가 5000호 등이 새로 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내년도에 약 706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90억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농민공익수당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올해 처음 시행했다. 신청 접수 및 이행점검 절차를 거쳐 추석 전 10만6000여 농가에 643억원 정도를 지급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민 공익수당 사업 시행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한 것처럼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찾아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순창군 장류산업특구 전경.

순창군, 장류산업 ‘100년 먹을거리로’

특구면적 확대...사업비도 1828억원으로 늘려 식품거리 등 조성

순창군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장류산업특구 면적 확대와 특화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순창 장류산업특구는 면적이 22만 5000㎡에서 35만3000㎡로 확대된다. 사업비는 당초 974억원에서 1828억원으로 854억원이 늘어나게 됐다.

순창군은 장류산업특구를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1175억원을 투입해 투자선도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미래 100년의 먹을거리 설계를 위해서다.

투자선도지구에는 추억의 식품거리 등이 조성되는 참살이 발효마을 건립(197억원),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센터(61억원), 음식·스토리 마켓(50억원) 등이 들어선다.

또 유용미생물은행(300억원), 발효미생물산업화 지원센터(80억원) 등 연구시설과 지원센터 등이 건립돼 6차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게 된다.

특구 계획변경에 따라 순창장류산업특구 내 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특화사업과 관련해 특허 출원을 하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등이 적용돼 관광·산업기술·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정읍시민의 장’ 수상자 문화장 김재영씨 등 4명 선정

정읍시가 ‘2020년 정읍시민의 장’ 수상자 4명을 선정·발표했다.

정읍시는 정읍시민의 장 선발 심사위원회가 열려 문화장에 김재영(62)씨, 새마을장에 권동임(70)씨, 산업장에 구성규(60)씨, 애향장에 이승호(76)씨를 각각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읍시민의 장은 ‘정읍시민의 장 조례’에 의거 매년 심사를 통해 선발돼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정읍시 최고 권위의 상이다.

문화장 수상자인 김재영씨는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으로 정읍의 정체성 확립과 동질성 회복과 강화를 위해 ‘내 고창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1996)’ 등 33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방송 출연과 언론매체 기고, 학술논문 발표, 유물 기증 등 정읍의 역사문화 자원의 홍보와 위상 정립에 힘썼다.

새마을장을 수상한 권동임씨는 새마을협의회장을 역임하며 소외계층 돌봄과 환경정화사업 등을 통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공헌했다.

산업장을 받은 구성규씨는 ㈜두손푸드 대표로 농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며 지역 농가 소득 증대



문화장 김재영씨 새마을장 권동임씨 산업장 구성규씨 애향장 이승호씨

와 매출 확대로 농업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고 있다는 평이다.

애향장의 이승호(주한양컨트리클럽 대표)로 고향 발전을 위해 뜻있는 출향인사들을 모아 정읍을 사

랑하는 모임을 발족하며 지역 발전과 출향인 화합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 공익장 수상자는 올해 선정되지 않았다.

정읍시민의 장 시상식은 오는 11월1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26회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